

(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5면)

가락시장역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



▲유미현 의원
(석촌동·가락1
동·문정2동)은
지하철가락시
장역 내 유휴공
간을 활용한
'실내 스크린
파크골프장' 조
성을 제안했다.

유 의원은 "2025년 기준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에 한 해 동안 4만 1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, 송파구와 같은 도심 지역은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신규 인프라 조성인 정체된 실정"이라고 지적했다.

유 의원은 도심 속 공간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. 야외 시설에 비해 부지 제약이 적고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

않는 장점이 크다는 설명이다.

특히 유 의원은 "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가락시장역 7번 출구 인근 지하 2층에 약 184㎡(약 55평) 규모의 방치된 유휴공간이 존재한다"며 "최근 주민, 서울시의원,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주민 생활체육 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"고 밝혔다.

이어 유 의원은 송파구청에 △가락시장역 지하 공간의 구조·안전성·접근성·사업비 등 타당성 구체적 검토 △공간 사용 절차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의 적극적 협의 △송파구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 수립 등 3가지를 촉구했다.

끝으로 유 의원은 "늘어나는 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부지만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 유휴공간의 새로운 쓰임을 찾는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"고 말했다.